

영란은행, '24.6월 통화정책회의 결과 및 시장 반응

< 요약 >

◇ **영란은행**은 2024년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**정책금리를 현 수준(5.25%)에서 유지**하기로 결정

* 총 9명의 정책위원 중 7명이 동결, 2명이 25bp 인하 의견을 제시

○ **물가 상승세가 둔화세를 이어가고 고용상황도 서서히 완화**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, 서비스물가 및 임금상승률 등 **물가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지표들의 추이를 좀 더 확인할 필요**가 있는 만큼 **정책금리 동결이 적절한 것으로** 판단

○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목표수준에 안착할 때까지 **통화정책이 상당 기간(extended period of time) 긴축적으로 운용될 필요**

○ 아울러 **영란은행은** 향후 노동시장의 상황, 임금 및 서비스 물가의 움직임 등 **국내 물가상승 압력의 지속성**을 면밀히 **모니터링**할 방침

— 경제전망을 실시하는 8월 회의에서는 **이용가능한 모든 데이터가 물가 지속성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**하여 **통화정책을 결정**할 계획

◇ **시장 참가자들은** 최근 서비스 물가가 영란은행 전망치를 상회했음에도 **정책금리를 동결한 정책위원 일부가 고물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**한 점이 **예상보다 소폭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**

1. 통화정책회의의 결과

□ [결정 내용] **영란은행**은 2024년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**정책금리를 현 수준 (5.25%)에서 유지**하기로 결정

○ 총 9명의 정책위원 중 7명이 동결*, 2명이 25bp 인하 의견을 제시

* 금번 6월 회의 의사록에서는 7명이 동결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금리 인하를 위한 충분한 증거로서 **물가의 지속성 지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**고 언급. 일부 위원들은 높은 서비스 물가 수준 및 임금 상승률이 2차 효과를 유발하며 물가의 지속성을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 반면, 다른 일부 위원들은 예상보다 높게 나온 5월 서비스 물가상승률이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

○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목표수준에 안착할 때까지 **통화정책이 상당기간 (extended period of time) 긴축적으로 운용될 필요**

○ 아울러 **영란은행은** 향후 노동시장의 상황, 임금 및 서비스 물가의 움직임 등 **국내 물가상승 압력의 지속성**을 면밀히 **모니터링**할 방침

— 경제전망을 실시하는 **8월 회의에서는 이용가능한 모든 데이터가 물가 지속성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**하여 **통화정책을 결정**할 계획

□ [결정 배경] **물가 상승세가 둔화세를 이어가고 고용상황도 서서히 완화**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, 서비스물가 및 임금상승률 등 **물가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지표들의 추이를 좀 더 확인할 필요**가 있는 만큼 **정책금리를 동결**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

○ **GDP**는 금년 1/4분기에 5월 전망치(+0.4%)를 상회하는 0.6% 성장하였으며, 2/4분기에도 0.5% 성장하여 **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**

— 소비자신뢰지수, 재무상황기대, PMI 지표 등 **심리지표도 개선 움직임**을 보이면서 **경기 개선 전망을 뒷받침**

○ **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중 2.0%까지 둔화**되었으며, 이는 주로 상품 및 에너지 가격의 기저효과 등에 크게 기인

— 영란은행이 통화정책 결정시 중요시하는 **서비스물가는 5월에도 둔화세***를 이어 갔으나 숙박, 항공운임 등이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며 **직전 전망치(+5.3%)에 비해 높은 상승률**을 기록

* 서비스물가 상승률(전년동기대비, %) : 2024.1월 6.5 → 2월 6.1 → 3월 6.0 → 4월 5.9 → 5월 5.7

○ **민간부문 명목임금 상승률**(정기급여, 직전 3개월 기준)은 **4월 5.8%로 서서히 둔화되는 모습**이나 **그 수준이 여전히 높고**, 일부 서베이* 결과에 따르면 **향후 둔화 속도도 예상보다 더딜 가능성**

* Bank's Agent 서베이, Decision Maker Panel(DMP) 서베이 등 영란은행 자체 서베이

— **고용상황은**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으로 판단되나 구인수요대비 실업자수(unemployment to vacancies)가 상승*하면서 **코로나19 직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모습**

* 23.11월 1.4% → 12월 1.4% → 24.1월 1.5% → 2월 1.6% → 3월 1.6% → 4월 1.7%

2. 금융시장 평가 및 반응

□ **시장 참가자**들은 최근 **서비스 물가**가 영란은행 전망치를 상회했음에도 정책 금리를 동결한 정책위원 일부가 **고물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**한 점이 **예상보다 소폭 완화적인** 것으로 평가

○ **정책결정문**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전체적인 어조는 dovish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 **8월 인하 가능성**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(TD, ING)

○ 금리동결을 주장한 위원 중에서도 일부는 **향후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예상대로 진전될 것으로 평가**한 점은 8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여줌*(ING, Nomura, BNP, JPM)

* 금번에 금리인하를 주장한 2인 위원 외에 금리동결 7인 위원 중에서 일부가 8월 회의에서 인하를 주장시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

— **서비스 물가**의 전망치 상회를 일시적인 변동으로 평가한 점은 시장의 **과도한 해석을 경계**한 것으로 보이며(ING, Lloyds), **향후 금리인하 결정을 위한 서비스물가 기준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**(HSBC)

□ 주요 **투자은행**들은 금년 **8월중 금리인하 개시 전망**을 유지하면서도 영국 총선 이후 **영란은행 정책위원들의 발언***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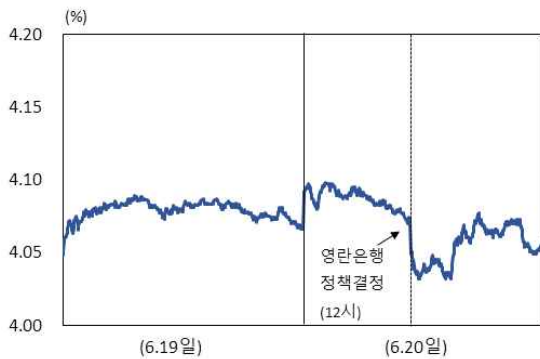
* 영란은행은 7.4일 영국총선 전에는 정책위원들의 공개성명 및 기자간담회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음(5.23일)

○ 선도금리시장에 반영된 8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63%로 전일(34%) 대비 상승

□ **영국 국채금리**(10년물 기준)는 영란은행의 정책결정 직후 소폭 하락했으나 이후 미 금리에 연동되면서 **강보합**(17:00시 기준 4.06%, 전일대비 -1bp)

○ 미 달러화 대비 **파운드화 환율**도 통화정책 결정이 예상보다 소폭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되면서 **하락**(17:00시 미달러화 기준 1.2667, 전일대비 -0.42%)

영국 국채금리(10년물)



자료 : 블룸버그

미달러화 대비 파운드화 환율



자료 : 블룸버그